

보성 '구 보성여관' 생생문화재 활용사업 추진

보성군은 오는 11월까지 벌교읍 '구 보성여관'에서 '생생문화재 활용사업'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생생문화재 활용사업'은 문화재청과 전라남도, 보성군에서 사업비를 지원하고 문화유산국민신탁이 운영한다.

이번 사업은 국가 등록문화재 제132호 구 보성여관에서 지역 문화를 활용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방문객들에게 보성여관을 알리고 그 가치를 지어 나가고자 추진했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감성 공연(실내악/판소리/연극), ▲문화체험교실(연자방공예/녹차 화상품), ▲주말 힐링 문화공간(전통 악기 공연) ▲보성여관 속속들이 등이 있다.

▲감성 공연은 민족음악가 채동선 선생의 곡을 골자로 한 실내악 공연, 서편제 보성 소리를 계승하는 지역 명창 판소리 공연, 근대 연극 공연이 운영될 예정이다.

국가 등록문화재 제132호서 즐기는 문화 체험

감성 공연 · 문화체험교실 등 프로그램 다채



▲문화 체험 교실은 보성 녹차를 활용한 화상품 만들기, 연자방을 활용한 전통 공예 활동이 진행되며, ▲주말 힐링 문화 공간 프로그램은 주말 상시 테마 공연이 진행될 계획이다.

▲보성여관 속속들이는 상설프로그램으로 방문객들이 보성여관의 추억을 간직할 수 있도록 스크래치 보드 작품을 만들어 보는 체험 활동이 있다.

광주에서 온 관람객 김 모 씨는 "차와 함께 공연을 볼 수 있는 기회는 흔치 않는데 예상치 못한 감동까지 받아 평생 기억에 남을 것"이라며 "구 보성여관을 둘러보고,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주변 문화유산에 관심을 갖게 됐다"고 말했다.

생생문화재 프로그램은 일정과 장소가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 후 방문해야 하며, 자세한 사항은 보성여관 ☎061-858-7528으로 문의 가능하다.

한편, 구 보성여관은 1935년 건립된 일본식 2층 건물로 일식 목조건축의 특징을 잘 간직하고 있는 보전 가치가 큰 건축물이다. 대하소설 태백산맥 속 '남도여관'의 실제 모델로 2004년 등록문화재로 등재됐다.

현재는 카페와 문화공간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소설 속 '남도여관'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숙박 동도 운영하고 있다. /보성=장국모 기자

곡성군수배 전국생활체육 복싱대회 '성료'



곡성군이 지난 17일 오후 다목적체육관에서 제1회 곡성군수배 전국생활체육 복싱대회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이번 복싱 대회는 곡성군에서 처음으로 개최된 전국단위 대회로서 우수한 선수를 발굴해 지원하고, 지역 내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

경기에 참가한 100여 명의 복싱 선수들은 각자의 기량을 마음껏 발휘하며 경기에 임해 많은 관람객들의 박수를 이끌어 냈다.

곡성군 관계자는 "이번 대회를 통해 전국 복싱인들의 화합과 교류의 장을 제공하고, 복싱이라는 종목을 널리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됐다. 앞으로 다양한 체육행사를 추진해 곡성군의 위상을 높이는 데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곡성군 관계자는 "이번 대회를 통해 전국 복싱인들의 화합과 교류의 장을 제공하고, 복싱이라는 종목을 널리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됐다. 앞으로 다양한 체육행사를 추진해 곡성군의 위상을 높이는 데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곡성=황성민 기자

순천시어린이급식지원센터 어린이편식예방 인형극 '호응'

사단법인 순천시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만 1~2세 어린이를 대상으로 편식 예방 순인형극 '돌아와요! 튼튼대장 호응이'를 지난 13일부터 16일까지 4일 동안 호남호국기념관 다목적강당에서 총 8회 진행했다고 밝혔다.

인형극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어린이들의 올바른 식생활 실천을 위해 선정한 3대 과제인 △편식예방 △순식 △음식 남김 감소를 주제로 이뤄졌다. 센터 등록 급식소 중 사전 신청을 받아 이뤄진 이번 공연에는 65개소 1,000여 명의 어린이집 원생과 교사, 학부모 등이 참여했고 큰 호응을 얻었다.

인형극에 참가한 어린이집 원장은 "만 1~2세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춘 순인형극으로 성장기에 꼭 필요한 영양 교육을 진행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심기섭 순천시 식품위생과장은 "이번 공연이 어린이들의 올바른 식습관 형성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는 영양·건강 프로그램을 적극 추진해서 순천시 어린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순천시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영양사 고용 의무가 없는 100인 미만 어린이 급식시설의 위생·안전 및 영양관리를 위한 순화 방문 지도를 중점 업무로 추진하고 있다.

'남도영화제 시즌1 @순천' 개최 공식 확정

오는 10월 11일부터 6일간 내달 31일까지 상영작 모집

전남도와 순천시가 주최하고 (사)전남영상위원회가 주관하는 남도영화제(Nam-do Film Festival) 시즌1 @순천이 오는 10월 11일부터 16일까지 6일간 순천시와 전라남도 일원에서 열리는 일정을 공식 확정하고 상영작 공개 모집에 들어갔다.

남도영화제의 국내 작품 공모는 지난해 5월 이후 제작된 작품으로, 대한민국 국적의 창작자면 누구나 출품이 가능하다. 극영화, 다큐멘터리 등 형식은 제한이 없으며 상영시간이 60분 이상이면 장편, 60분 미만이면 단편으로 나눠 접수한다.

출품작은 공식 누리집(www.ndff.kr)을 통해 7월 31일까지 접수하며 장편과 단편 모두 마감한다. 선정작 발표는 9월 중으로 선정자에게 개별 연락할 예정이다.

영화제 시상상은 작품상을 포함한 총 3천만 원 상당의 상금 및 부상을 수여할 예정이며, 자세한 사항은 공식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남도 Everything'을 테마로 순천에서 열리는 이번 영화제는 남도의 멋과 맛, 흥에 흠뻑 빠져 전 세대가 함께 어우러져 즐길 수 있는 영화제다. 영화제의 비전과 공유성을 드러내기 위해 다른 영화제와 다르게 '회'가 아닌 '시즌'을 최초로 도입하였으며, 제작 지원 프로그램 및 상금이 있는 경쟁 부문 시상도 도입하였다. 남도영화제는 매년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시즌제로 진행할 예정이다. /순천=조순익 기자

한편, '남도 Everything'을 테마로 순천에서 열리는 이번 영화제는 남도의 멋과 맛, 흥에 흠뻑 빠져 전 세대가 함께 어우러져 즐길 수 있는 영화제다. 영화제의 비전과 공유성을 드러내기 위해 다른 영화제와 다르게 '회'가 아닌 '시즌'을 최초로 도입하였으며, 제작 지원 프로그램 및 상금이 있는 경쟁 부문 시상도 도입하였다. 남도영화제는 매년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시즌제로 진행할 예정이다. /순천=조순익 기자

한편, '남도 Everything'을 테마로 순천에서 열리는 이번 영화제는 남도의 멋과 맛, 흥에 흠뻑 빠져 전 세대가 함께 어우러져 즐길 수 있는 영화제다. 영화제의 비전과 공유성을 드러내기 위해 다른 영화제와 다르게 '회'가 아닌 '시즌'을 최초로 도입하였으며, 제작 지원 프로그램 및 상금이 있는 경쟁 부문 시상도 도입하였다. 남도영화제는 매년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시즌제로 진행할 예정이다. /순천=조순익 기자

한편, '남도 Everything'을 테마로 순천에서 열리는 이번 영화제는 남도의 멋과 맛, 흥에 흠뻑 빠져 전 세대가 함께 어우러져 즐길 수 있는 영화제다. 영화제의 비전과 공유성을 드러내기 위해 다른 영화제와 다르게 '회'가 아닌 '시즌'을 최초로 도입하였으며, 제작 지원 프로그램 및 상금이 있는 경쟁 부문 시상도 도입하였다. 남도영화제는 매년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시즌제로 진행할 예정이다. /순천=조순익 기자

한편, '남도 Everything'을 테마로 순천에서 열리는 이번 영화제는 남도의 멋과 맛, 흥에 흠뻑 빠져 전 세대가 함께 어우러져 즐길 수 있는 영화제다. 영화제의 비전과 공유성을 드러내기 위해 다른 영화제와 다르게 '회'가 아닌 '시즌'을 최초로 도입하였으며, 제작 지원 프로그램 및 상금이 있는 경쟁 부문 시상도 도입하였다. 남도영화제는 매년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시즌제로 진행할 예정이다. /순천=조순익 기자

한편, '남도 Everything'을 테마로 순천에서 열리는 이번 영화제는 남도의 멋과 맛, 흥에 흠뻑 빠져 전 세대가 함께 어우러져 즐길 수 있는 영화제다. 영화제의 비전과 공유성을 드러내기 위해 다른 영화제와 다르게 '회'가 아닌 '시즌'을 최초로 도입하였으며, 제작 지원 프로그램 및 상금이 있는 경쟁 부문 시상도 도입하였다. 남도영화제는 매년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시즌제로 진행할 예정이다. /순천=조순익 기자

한편, '남도 Everything'을 테마로 순천에서 열리는 이번 영화제는 남도의 멋과 맛, 흥에 흠뻑 빠져 전 세대가 함께 어우러져 즐길 수 있는 영화제다. 영화제의 비전과 공유성을 드러내기 위해 다른 영화제와 다르게 '회'가 아닌 '시즌'을 최초로 도입하였으며, 제작 지원 프로그램 및 상금이 있는 경쟁 부문 시상도 도입하였다. 남도영화제는 매년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시즌제로 진행할 예정이다. /순천=조순익 기자

구례, 전남형 생태학습도시 조성 '에코원정대' 시작

주민 생활 속 생태자원 활용 학습프로그램 운영

구례군은 전남형 생태학습도시 조성을 위해 지난 17일 "에코원정대"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전남형 생태학습도시조성 사업'이란 주민의 생활 속에서 생태학습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건강한 시민의식을 높이기 위한 사업이다.

이 사업은 '부모와 자녀가 함께 하는 에코원정대', '에코 리더 활동가 양성' 등 생태자원을 활용한 생태학습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한다.

'구례 에코원정대' 프로그램은 지난 17일 지리산역 사문화관에서 진행됐다. 단오 명절을 앞두고 부모와 자녀 참가자 40여 명이 장포를 체험, 한지 부채 만들기 등 다양한 전통문화를 체험했다.

군은 7월부터 탄소중립 실천을 위해 '탄소제로 도전 골든벨', 섬진강 생태자원을 활용한 섬진강 놀이터, 압화를 바탕으로 한 생태 미술 활동, 구례수목원의 수국정원 체험 등 다양한 생태문화 체험 프로그램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군은 전문 생태 활동가 양성을 위한 "에코 리더 양성과정"과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COP33 전남 유치에 위한 군민 캠페인도 추진해 탄소중립 실천 동참을 유도하고, 기후 보호의 중요성을 알릴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올해 처음으로 시작하는 생태학습 도시사업이라 격정이 많았지만, 체험프로그램 참여자들의 반응이 좋아 성공적인 첫걸음을 내디뎠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고품격 생태학습 프로그램을 진행해 전남형 으뜸 생태학습도시, 섬진강권역 생태학습도시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구례=오광범 기자

정인화 광양시장, 직원과 소통·공감 대화

전략정책실 방문... 간식 전달과 함께 직원 노고 격려



광양시는 직원 간 소통을 강화하고 활력 있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지난 19일 '광양시가 응원합니다' 행사를 가졌다.

'광양시가 응원합니다'는 정인화 광양시장이 직접 간식을 들고 부서를 방문해 직원 사기 진작과 함께 시장과 직원 간 자유로운 소통을 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정 시장은 하반기 조직개편으로 폐지되는 전략정책실을 찾아가 광양시 인구정책, 청년 주택자금 이자보전 지원, 신산업 발굴 등 광양시 인구 유입 활성화를 위해 노력한 직원들을 격려하고 대화하는 자리를 가졌다.

'광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에 의거 전략정책실이 폐지되고, 담당업무는 '신산업과'와 '청년일자리과'로 이관된다.

행사는 전략정책실 직원들의 간단한 자기소개를 시작으로 최근의 관심사와 고민, 공직생활 고충 등을 허심탄회하게 털어놓으며 자유로운 분위기에 진행됐다.

특히, 정 시장은 선배 공무원으로서 경험했던 공직생활 고충과 스트레스 해소 경험담을 공유하고, 직원들도 자연스럽게 부서 현안과 근무여건 개선 요구사항을 건의하는 등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정인화 광양시장은 "전략정책실 직원들의 전문성과 업무에 대한 탁월한 능력으로 광양시의 비전과 목표를 실현하는데 많은 성과를 냈다"며 "이전 업무에서 축적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새로운 분야에서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가장보다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일터가 즐거운 곳이 되려면 소통을 바탕으로 서로 존중하는 문화를 형성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방법을 통해 직원들의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갖겠다"고 말했다. /광양=조순익 기자

자연으로 가는 길 구례
Road to Nature, Gurye

지리산과 섬진강의 풍요로움을 담은 구례군 로컬마켓

구례군 로컬마켓

구례군 로컬마켓

https://smartstore.naver.com/guryeshop
구매 문의 ☎ 061)780-8294